수해지역 농업인의 아픔을 나누며 건강 검진 실시

농협중앙회 · 한국건강관리협회 수해지역 농업인 무료 건강검사

농협 중앙회와 한국건강관리협회 수해지역 농업인 조합원 무료 건강검사는 지난 8월 12일 강원도 철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른 새벽, 의사 · 간호사 · 병리사 등 8명으로 구성된 건협 검진팀은, 첫 검사장소인 철원군 김화 농협을 향해 부지런히 차를 달렸다. 청량한 새벽 공기 사이로, 아직도 가시지 않는 수마의 상처가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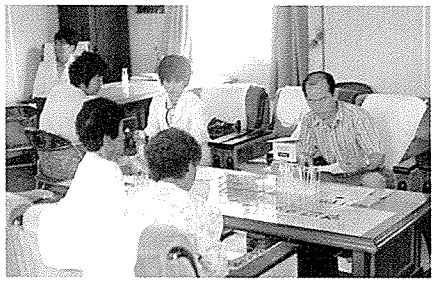
농업인의 피땀을 자양분으로 하여 결실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던 논밭의 황폐함이 농업인들의 주름을 얼마나 더 골지게 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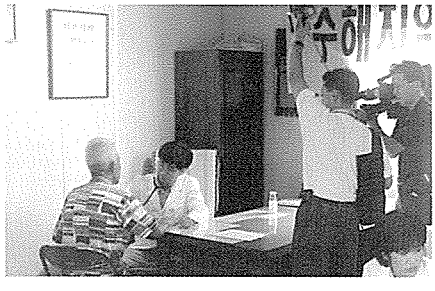
지난 7월 갑작스런 수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그중에서도 강원도 철원, 경기도 연천 · 파주 · 문산 지역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인명과 재산 손실을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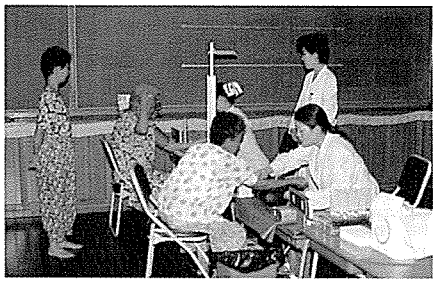
농협과 건협이 실시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모여드는 농업인들을 보면서, 하기 쉬운 말로 떠 내려간 재산은 다시 모으면 된다지만 너무나도 지쳐버린 농업인들의 체념어린 눈빛과 축 처진 어깨는 정말 무슨 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서게 했다.

농협과 건협이 공동으로 실시한 철원 · 연천 · 파주 · 문산 지역의 무료 건강진단사업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한 농업인들의 건강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계획되었다.

농협중앙회 공제 사업본부 의료담당 김학현 과장은, 『수해지역 농협 조합원 등 주민에 대한 무료 건강 진단을 실시해, 농업인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







방,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수해지역 복구와 수재민 돕기 대열에 적극 동참하고 전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동시에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무료 검진이 계획·추진되었습니다.』라고 이번 무료검진의 실시 배경을 설명한다.

이 무료검사는 8월 12일부터 8일간 강원도 철원군 김화·동성·갈말 농협, 경기도 파주군 적성 농협지소, 연천군 군남면 임진농협, 왕진면과 미산면 농협지소 등에서 실시되어 지역 농업인으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기초검사·소변검사·혈액질환·간기능·당뇨·심장 및 뇌혈관질환·간염·신장질환·X-Ray 검사, 진찰 및 건강 상담 등이 이번 무료 검사의 주요 종목이며, 특히 수해농민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각종 피부질환·중이염·대장장애·눈병 등에 대해서는 의사의 판정에 따라 현지에서 직접 치료를 해 주었다.

또 검사 및 진단 결과 현지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병원에서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다.

약 1천여명의 수해지역 농업인이 건강검사를 받은 이번 무료검진은, 수해복구와 생활 안정이 급선무인 농업인들에게 당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검진을 받았던 농업인의 『이렇게 직접 찾아와 농민건강에 관심을 가져 주시니, 힘이 더 납니다. 하루 빨리 수해의 악몽에서 벗어나도록 더 노력해야지요.』라는 말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든 기본적으로 건강만 보장되면 상황 극복이 더 쉬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편 김학현 과장은, 『농협은 농업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입니다. 이번에 건협과 함께 수해지역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막을 수 있는 재해는 피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 내년에는 이런 아픔이 없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해 이번 수해가 모든 사람의 아픔임을 느끼게 했다.

사람에게는 정말 피할 수 없는 불상사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인간에게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가 있다. 이번 수해가 피할 수 없는 불상사였다면 농업인의 극복을 위한 노력은 건강한 삶을 위한 인간승리일 것이다.